

“미술 관람, 위안 주는 ‘사회적 처방’ 될 수 있어요”

황지희 광주시립미술관 시민도슨트 단장

전시 ‘관람객’에서 ‘안내인’ 변신
독특한 해설사·작가 영향에 입문
개인사업·봉사 병행하지만 ‘보람’
“좋아하는 작품 설명할 때 행복”

지난 9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과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특별전 ‘시천여민’ 등이 열리고 있는 광주 북구 광주시립미술관은 관람객의 발길이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관람객들에게 전 시작품을 설명하는 안내인 ‘도슨트’들도 분주한 모습이었다.

황지희 광주시립미술관 시민도슨트 단장도 이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도슨트 봉사를 시작해 올해 6월 단장직을 맡게 됐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과 다른 독특한 걸 좋아했다. 관람객으로 특별전을 찾아 한 도슨트의 설명을 들었을 때 당시 남다른 의상과 특색 있는 해설에 흠뻑 빠져 관심이 생기게 됐다”고 전했다.

평소 광주와 서울 등을 오가며 전시를 관람하면서 예술을 취미로 향유했던 그가 도슨트가 되기로 결심하는 데는 두 번의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

첫번째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시 마리아트뮤지엄에서 열린 앙리 마티스 특별전이였다. 당시 윤석화 도슨트 겸 작가가 마치 작품을 직접 표현하려는 듯 예사롭지 않은 의상을 입고, 기준에 들어왔던 상투적이고 기계적 해설과는 다른 기승전결에 따라 독특한 말투로 설명하는 모습에 매료됐다.

그래서일까. 이날 만난 황 단장은 흔하지 않은 검은색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전시관 앞에서 안내 방송을 하는 도슨트가 평범한 복장을 차려입은 것과는 달리 확연히 눈에 띄는 의상이었다.

황 단장은 가장 좋아하는 미술작가 중 한 명으로 유형국 작가를 뽑았다. 2021년 2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유 작가의 그림을 본 뒤 추상적 작품 내면의 깊이 있는 탐구와 작가 개인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다는 욕구가 도슨트가 되기로 다



황지희 시민도슨트 단장이 9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집한 두 번째 계기가 됐다.

지난해 우연히 전시 작품과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시민도슨트 신청 공고를 보고 곧바로 지원한 건 이 같은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언젠가 도슨트가 되겠다’는 마음속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그렇게 황 단장은 예술을 즐기는 ‘관람

인’ 중 한 명에서 예술을 설명하는 ‘안내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돈이 1순위가 아니었어요.”

경영학을 전공한 황 단장은 시민도슨트로 활동하기 전부터 숙박업을 통해 개인 사업을 해왔고 현재는 본업과 도슨트 봉사활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사이기 때문에 도슨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사실상 없지만, 몸은 힘들더라도 여러 미술 작품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도슨트 활동을 하며 가장 행복한 순간은 본인이 좋아하는 작품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할 때라고 강조했다. 황 단장은 “2024 광주시립미술관 여름특별전 한국 미술명작전”이 지난 6-8월 열렸는데 당시 3층에 걸린 유명국 작가의 작품들을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고 설명할 때 너무 뿌듯하고 행복했다”고 전했다.

황 단장은 현재 시립미술관 1, 2층에서 비엔날레 파빌리온, 3층의 1·2전시관에서 광주비엔날레 30주년 기념특별전 ‘시천여민’ 안내 및 해설을 담당하고 있

다. 미술관 규정에 따른 최소 시간만 채우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그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관객들이 각기 다른 목적으로 미술관을 찾아 힘들 때 그림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갖가지 고통으로부터 치유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최근 ‘사회적 처방’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미술 관람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 예술은 일상에서 즐기는 취미 활동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처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회적 처방으로는 원예, 정원 가꾸기 등이 있는데 미술 관람도 여기 포함될 수 있고 도슨트는 이런 사회적 처방을 돕는 링크워커 직군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황 단장은 말한다.

그는 “링크워커란 사회적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의미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도슨트 활동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에는 1기 9명, 2기 11명, 명예도슨트 1명 등 21명의 시민도슨트가 활동 중이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음악과 함께 ‘가을밤에 듣는 니체의 음성’

14일 예술의거리 달정원 카페
니체 탄생 180주년 강연 행사

‘신은 죽었다’고 말한 독일의 철학자 니체(1844~1900) 탄생 18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근사한 생일잔치가 마련된다. 철학교실 필로소피아는 음악과 함께 하는 강연행사 ‘가을밤에 듣는 니체의 음성’을 오는 14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거리 입구에 있는 달정원 카페에서 연다.

이날 행사는 니체의 생애스케치에서부터 특별강의, 니체를 주제로 한 음악연주와 음악감상, 그리고 전시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철학교실 필로소피아(성진기 교수)와 문화포털 문화통, 은암미술관이 공동주최한다. 진행은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 대표가 맡는다.

이날 여는 음악은 독일 출신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작곡가의 곡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Also sprach Zarathustra)’로 이상권 전남대 명예교수의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이어 촛불이 켜지고 성

진기 교수가 생애스케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소개한다.

하이라이트는 한국 니체학회 이선 교수의 특별강연으로 ‘니체의 삶에 대한 사랑과 생태주의’를 알기 쉽게 들려준다. 이어지는 무대는 연주 코너로 피아니스트 김현욱이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을 들려준다. 이어서 이상렬 첼로 연주로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을, 플룻 연주 클로드 볼링의 ‘일랑데즈’와 루시니의 ‘안단테 변주’를 연주한다.

마지막 순서는 청중과의 대화로 ‘왜 니체인가’를 놓고 진진한 토론이 이어진다. 참가자 모두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합창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행사가 진행되는 달정원에서는 니체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서양화가 서현화 작가의 작품과 니체의 사진, 니체 관련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행사참가비는 1만원이며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가 가능하다. 주차는 오후 11시까지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무료사용이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엄기준 초대전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

내달 3일까지 소암미술관
SF 설정 등 환경문제 직시

소암미술관이 지구상의 자본주의적 환경문제를 직시한 엄기준 작가의 초대전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오는 11월 3일까지 연다.

‘캐피행성과 호모빅뱅인’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전시에서 지구에 온 가상의 캐피행성의 친구들, ‘호모빅뱅인’ 설정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엄기준 작가는 쓰레기로 망가져가는 지구의 환경문제를 다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캐피행성과 호모빅뱅인이라는 SF 공상과학 배경을 접목해 작품을 선보인다. 호모빅뱅인은 지구인을 계몽하고, 서로 공명하는 생존의 법칙으로 지구의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해 간다는 설정이다. 전시작은 입체 캐릭터 54점, 영상 2점, 평면 트리아트 4점 등 총 60점에 이른다.

특히 효과음과 함께 이지러지고 분해



엄기준 작 ‘토르와 코알라’. 소암미술관 제공

해체되는 호모빅뱅인 인형 50개의 변화 양상을 TV 모니터 영상에 담아낸 작품이 눈길을 끈다. 작가는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들여다 보도록 했다. 또 자연친화적인 재료인 하얀 종이 점토로 호모빅

뱅인을 만들기도 했는데, 호모빅뱅인을 향해 색색의 물감 총을 쏘 실시간으로 변화해가는 인형의 형태에서 인간의 모습을 반조하게 했다.

소암미술관 관계자는 “작품의 지구는 점점 자연과 멀어지는 인공과 가공의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 생활의 편리함은 오히려 불투명한 지구의 미래를 가속한다. 지구가 당면한 환경문제와 자본주의의 폐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불난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과 흡사하다”며 “불타는 집에서 즐겁게 노느라 밖으로 나오지 않는 어린 아들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장난감을 대문 밖 수레에 가득 담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엄기준 작가와 같은 장자들이 사회 곳곳에서 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암미술관은 남구 중앙로에 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

도선인 기자

국립극단 낭만활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2024 ACC 페니’ 마지막 작
12월 5~7일 예술극장 극장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대중공연 브랜드 ‘2024 ACC 페니’의 마지막 작품으로 국립극단 낭만활극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를 오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ACC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올린다.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는 프랑스 작가 에드몽 로스탕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를 원작으로, 국립극단이 새롭게 각색해 청소년극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이번 작품은 전쟁터와 극장, 수도원을

넘나들며 넓게 펼쳐진 원작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압축하고 상상력을 덧칠했다. 원작에 담긴 독설과 유머, 재기 넘치는 대사와 화려한 시구로 가득한 낭만적 사랑은 더욱 더 경쾌하고 발랄한 모습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원작에서는 주인공 시라노의 안타까운 사랑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관계와 인물에 초점을 맞춰 네 사람의 다양한 사랑의 방식을 보여준다. 관객들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주인공 네 사람의 모습에 자신을 대입해 볼 수 있다.

사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네 주인공들의 이야기는 청소년 관객뿐만 아니라 성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관객들은 작품 속 인물들이 겪는 사랑의 모습에 스스로를 비추보며, 진정한 자신을 오롯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록산느를 위한 발라드’ 공연은 12월 5일과 6일 오후 7시30분, 12월 7일 오후 2시 등 총 3회 진행되며,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다. 예매는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을 통해 가능하다. 문화패스(만7세~만24세) 대상인 청소년은 50% 할인되며, 올해 수능 수험생에게는 프로그램북 등 기념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